

중산층 가정의 ‘기획’과 80년대 ‘워킹맘’의 경계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오자은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 1 서론
- 2 중산층 가정의 ‘기획/관리’와 ‘비대한’ 여성
- 3 기획된 일상과 80년대 워킹맘의 경계
- 4 일상과 신체의 ‘정지’와 그 의미
- 5 결론

이 글은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80년대 소설에서 보이는 맞벌이 여성이 속한 중산층 가정의 테일러리즘 양상과 균열, 그 동역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졸 사무직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문제는 중산층 가정의 테일러리즘화의 과정과 그것이 초래하는 삶의 균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된다. 맞벌이 여성들은 일과 가사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하며,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가사와 가정 일에 기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압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질적 효율성의 관리 의무까지 떠안는다. 게다가 끊임없이 가정 안팎의 타자들에 의해 불완전한 의무 수행을 의심받고, 실제로 그것이 미흡하게 수행될 경우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취약한 위치에 서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은 이른바 ‘워킹맘’ 첫 세대의 등장, 그러나 아직 그러한 ‘워킹맘’을 수용할 사회적 논리나 기반이 마련되기 이전의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상태를 보여준다.

위의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2장에서는 당시 중산층 가정의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테일러리즘의 ‘미덕’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역동적 계기를 예비적 작업으로 살폈다. 3장에서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맞벌이 여성 청희와 그녀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규율과 관리의 작동 방식을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가정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일상의 어셈블리 라인에서 복무하는 노동자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모순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4장에서는 청희가 겪는 실패와 좌절의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그녀가 자신의 기계적 일상-삶에 깊은 회의와 환멸을 느끼며 자신이 속한 중산층 가정의 어셈블리 라인을 중단시키기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정쩡한 봉합처럼 보이는 결말과 그러한 결말이 보여주는 리얼리티의 의미를 살폈다.

국문핵심어: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워킹맘, 중산층, 테일러리즘, 신체, 기계

1 서론

박완서는 『도시의 흥년』에서 주인공 수연이 명동 한복판 높은 빌딩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 아버지의 사무실에 방문한 후 겪는 충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는 제일 조급한 음향에 능률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당장 비참한 낙오자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앓고 있다. 그 속에서 나는 제일 조급한 음향은 뭐니 뭐니 해도 노련한 타이피스트들이 치는 타이프라이터 소리이다.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은 그 소리를 닮아 빠르고 경쾌하고 기계적이다. 걸음도 그 소리에 맞춰 오두방정 떨어듯이 걷고, 혹시 일이 없어 쉬는 시간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러자니 일의 걸모양은 가장 빠르게, 일의 실속은 가장 느리게 하는 기교가 최대한으로 발달한다. 쉬는 꼴을 남에게 보였다고 녹슨 기계처럼 폐기처분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¹

복잡한 시장통에서 시끄럽게 상인들이 오고 가는 엄마 김복실 여사의 광장시장 포목주단과는 다른, 친구 아버지의 ‘기업’과 ‘사무실 환경’은 수연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절제되고 효율적인 노동의 리듬에 맞춰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느껴지고, 그들 사이를 감도는 예기불안, 그 리듬을 놓치면 “녹슨 기계”가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은 어셈블리 라인 기반의 테일러주의가 사무실 환경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시간 관리와 그에 최적화된 노동 리듬에의 적응 여부에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포디즘과 테일러리즘은 생산과정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공장과 노동과정에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한다. 그것은 인간 노동의 요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노동 과정

1 박완서, 『도시의 흥년』 3권, 세계사, 2012, 81쪽.

과 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자를 이에 맞추어 훈련시킴으로써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서,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과정에서 ‘시간’과 ‘동작’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동작이 효율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작’,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자는 생산 과정을 지배하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한 가지 작업수단에 불과해진다.² 이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계기를 이루는 것은 기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포디즘/테일러리즘이란 “분업을 기계들의 독립적인 운동에 의해 지배되고 계속 확장되는 시장을 위해 작동하는 동작들의 꾸러미로 강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생산성 향상”³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 1인당 단위생산량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면서 인간 노동의 리듬이 기계에 의해 규정되는바, 노동 과정에서 동작과 시간의 최적화는 노동자가 철저하게 기계의 “규칙적이고 연속적인 운동에 자기 자신의 운동을 적응”⁴시킬 것을 전제한다. ‘예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기계’란 생산 시간을 더 단축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⁵하고, 생산 공정의 가속화는 곧 노동의 가속화를 요청한다. 즉 노동자에게는 더 빠른 생산,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발전하는 기계와 그 생산 시스템에 능숙해지도록 자신을 맞추고 낭비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셈블리 라인 앞에 선 노동자는 효율과 과학적 관리라는 명분하에 기계화된 시스템에 지배당하는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압축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고성능 기계는 인간에게서 힘겨운 노동을 덜어줌으로써 인간을 보다 자유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계화와 효율화가 일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이윤을 동기로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역설은 해소된다.

-
- 2 이영석, 「전간기 영국의 자동차산업과 포디즘」, 『영국연구』 제24호, 영국사학회, 2010, 215-216쪽.
 - 3 기 드보르,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21쪽.
 - 4 카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I (하)』, 비봉출판사, 2015, 568쪽.
 - 5 심효원, 「근대적 공장으로서의 필름 영화-기술, 제작, 배급에서의 포디즘」. 『현대영화연구』 제14권 제1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8, 65쪽.

이때 흥미로운 것은 어셈블리 라인 기반의 포디즘, 테일러주의가 공장 환경, 산업 환경과 사무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 관리학

*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인생이다. 산다는 건 곧 선택이다.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안다면 결혼이란 걸 할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건 오 헨리의 익살이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한 마담’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남아 어쩔 줄 모르는 마님들을 빗대 하 말이었지만 요즈음은 쪽 들어갔다. 그만큼 이젠 바빠졌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주부들에겐 남자가 직장에 뺏기는 하루 중 열 시간 정도만큼은 자유시간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이걸 주체 못해 시간의 강물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면 문제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곧 인생이다. 산다는 건 고르는 일이다. 한정된 시간에 열 버리고, 무얼 취할 것인가가 곧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고 망설일 시간마저 우리에게 넉넉지 않다. 결정한 일이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라면 차라리 안함만도 못하다.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했습니까”—조간 신문을 얼마나 자세히 읽었는지, 청소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우두커니 TV만 지켜보고 앉은 건 아닌지, 전화를 들고 얼마를 오래 끌었는지도… (후략)⁶

위의 인용문은 이시형이 ‘중년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칼럼을 묶은 단행본으로 당시 주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며 70만부 넘게 팔린 8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 교양서 『자신 있게 사는 여성』에 실린 ‘주부의 시간관리학’에 관한 글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시간이 많은 일명 ‘유한마담’을 비판하면서

6 이시형, 『자신 있게 사는 여성』, 집현전, 1992, 247쪽.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누리는 ‘자유시간’을 낭비 없이 알차게 관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 간주한다. 아침에 배달된 조간 신문을 읽는 것에서부터 청소와 TV시청 시간, 전화 통화 시간까지 철저한 계산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설득력을 가졌다는 것은 80년대 중산층 가정에 과학적 관리, 과학적 일상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당시 중산층 가정에 꽤 보급되어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준 다양한 가전제품, 입식 부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는 주택의 새로운 내부 구조와 이에 걸맞은 신식 라이프 스타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총체적인 감각의 변화, 삶의 리듬의 변화가 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능이 좋은 가전제품과 편리한 주거 환경은 중노동에 가까운 장시간의 가사노동에서의 해방과 더 여유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산의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산업 현장에서와 달리 가정에서 가사 기계의 도입은 인간 노동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기밥솥과 세탁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정에서 더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더 많은 옷을 세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한 기술이 더 많은 노동을 낳는 역설은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세탁기나 전기청소기의 도입이 청결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서 과거에 비해 더 자주 세탁과 청소를 하게 만든 면이 있다.⁷ 조리 도구의 발전도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음식에 대한 기대를 낳아 역설적으로 주부에게 더 많은 일로 돌아오기도 했고, 가전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과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던 일에서 주부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여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믿음 인지도 모른다. 이시형이 말하는 ‘주부의 시간관리학’은 편리한 가사 기계와 입식 부엌으로 대표되는 효율적 가사 시스템을 통해 주어진 작은 ‘여유’조차 순수한 여유로 남아 있을 수 없음을 예고한다.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그냥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은 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입식 부엌의 구조가 전통적

7 김덕호, 『세탁기의 배신』, 뿌리와 이파리, 2020, 318쪽 참조.

가속 구조의 불필요한 동선과 불편한 동작을 제거하여 작업의 합리화를 실현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현저히 절감하게 해주었다면, 그렇게 절감된 시간과 에너지도 다시 어떤 유의미한 목적을 위해 마찬가지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낭비하지 않고 얻은 시간인 만큼 더 소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그래서 현대적인 가사 기계와 가사 시스템의 합리화는 가정에서 여성의 삶에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가전제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이것이 가정에 보급되며 그것에 적합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면서, 과학적 관리라는 지침 아래 주부들 역시 가사의 합리화와 표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⁸ 가정은 최대한 단순하고 빠른 과업 수행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이때 발전한 다양한 가전제품은 주요 보조수단이 된다. 주부는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해져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을 조직화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부터 산업 분야에서 혹은 공장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테일러주의와 그것의 핵심인 과학적 관리는 중간 계급 가정 개혁가들에게는 가사노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롤 모델”⁹이 된다.

둘째, 여성들은 가사의 합리화를 통해 얻어진 여유 시간을 포함하여 일상의 삶 전체를 바로 그러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모델로 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다. 그 요구는 종종 매우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외부적 간섭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세탁기와 청소기가 생겼으니 그만큼 여성이 무조건 편해졌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 전문성을 저하를 경고하며 위기감을 형성하는 흐름도 있었으며,¹⁰ 반대로 그렇게 ‘편해진’ 여성의 모습에 대해 경멸이나 혐오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다.¹¹ “인생이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8 위의 책, 72쪽.

9 위의 책, 73쪽.

10 “현대화의 물결과 함께 주부의 전문성은 몰락되고 말았다. 돈만 있으면 시장에 가서 못 살 것이 없다. 스위치만 누르면 다 되니, 주부직이란 전문화는커녕 앞으로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시형, 앞의 책, 68쪽.

11 “무슨 돼먹잖은 소릴 하는 거야? 흑백 텔레비가 뭐가 어때서? 세탁기 안 쓰면 누가 죽기라도 한대? 제 폰수대로 사는거지 뭘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다고 으스대는 거야?”

연습삼아 살 만큼 여유스럽지도 않다. 순간을 진지하게 살지 않으면 시간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도 한다”¹²는 이시형 식 시간관리학의 은근한 위협이 여성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혼자서 허송하면 나와 나의 가정만 뒤쳐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경쟁 심리를 부추기기도 했다. 따라서 산업과 경제의 세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든 시간 사용에서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시간 관리가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된다.¹³

중산층 가정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80년대 한국 소설에 보이는 다양한 감각의 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점보맨션”¹⁴이나 “한강맨션”¹⁵에 거주하면서 “안락한 입식 부엌과 옥내 욕실이 갖추어진 집”¹⁶의 편의를 누리며, 그 대신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계획, 관리하고, 입시 열풍 속에서 “일주일에 두 번 체르니를 끼고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¹⁷ 가는 자녀를 관리하는 여성의 일상은 고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규격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 관리와 효율적인 가정 경영은 예상 가능하다시피 가정 내 여성의 과업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상황은 ‘팔자 좋은 유한마담’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이러한 관리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주부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여성’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극단화된다.

이 시기 소설 속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변화라면 바로 ‘맞벌이 여성’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전 시대엔 주로 저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많았다면 80년대 중반부터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¹⁸ 이러한 새로운 ‘일하는 여

박영한, 『우리는 중산층』, 세계사, 1991, 230쪽.

12 이시형, 「중년여성—시간관리를 잘 하라」, 『조선일보』, 1983.5.19.

13 조주은, 『기획된 가족』, 서해문집, 2013, 196-197쪽.

14 박완서, 『도시의 흥년』 2권, 세계사, 2012, 215쪽.

15 위의 책, 257쪽.

16 서영은, 「산행」, 『서영은 중단편전집』 4권, 동지, 1997, 50쪽.

17 박완서, 「여인들」,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권, 문학동네, 2011, 272쪽.

18 정진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구조변화와 과제」, 『여성경제연구』 제4권 1호, 한국여성경제학회, 2007, 92-94쪽.

성'의 등장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전까지 여성의 일들이 대개 고등 교육이나 기술 습득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제도화된 형태의 일이 아닌, 주로 남성 가부장의 공백을 메꾸는 한시적 경제 행위나 제도 바깥의 음성적이거나 재래적인 경제 행위,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나 이자 놀이, 갯돈 놀이, 전통적인 장사, 또는 육체 노동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 시기부터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취를 실현하고 증명하는 '일하는 여성'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이나 소규모 장사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을 넘어서, 잡지사 기자¹⁹, 대학 강사 출신 미용학원 원장²⁰, 교사²¹ 등, 80년대 박완서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졸 전문 직업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타월로 대강 털어내기만 하고 드라이를 하는 것은 생략했다. 토스터가 밀어 올린 뽀뽀한 빵조각에 버터를 바르는 것도 생략하고 우유에다 적셔서 억지로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 역시 킬킬한 해장국 맛이 간절했다.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마는 등 시계를 보며 뒤편을 훑어보고 카세트를 솔더백 속에 챙겼다.

오늘 안으로 어떡하든 그 속에 들어있는 짹짹한 고음을 글자로 풀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천근의 무게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뿐 아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길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수많은 설거지를 혼자서 할 철민이도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설거지를 끝내고 꼭 목욕하고 나가라고 일러줄걸. 남자가 행주냄새 풍긴다는 소문이나 안 내려나 몰라.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됐다.

약속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도 남편에게 그런 일을 시키고 나서 왜 자책

19 '평등한 결혼의 실험'을 소재로 하는 박완서의 소설 『서있는 여자』의 주인공 연지가 여기 해당된다.

20 이 글의 주된 분석 대상인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주인공 청희가 여기 해당된다.

21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차문경의 직업이 교사이다.

감을 느껴야 하는지 연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²²

이러하면 여자도 반드시 자기 일을 가져야 된다고 믿는 『서 있는 여자』의 잡지 기자 연지는 평등한 결혼 생활을 위해 대학원생인 남편 철민과 철저한 계획 아래 가사를 분담하고, 기상부터 출근 준비,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토스트와 우유로 이루어진 아침 식사, 이후 퇴근 후까지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 잡지사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려 한다. 그녀는 이를 위해 당시 중산층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가전 제품들을 적재적소에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동원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장애물에 부딪힌다. 뿐만 아니라 이후 자세히 다루게 될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미용학원 원장 청희 역시 자녀 교육과 시어머니 모시기, 살림과 자신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잘 짜인 타임라인을 갖춘 일상을 계획하지만 끊임없이 주변인들로부터 평가 절하 당한다.

『서 있는 여자』의 연지가 결국은 맞벌이 부부 생활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과정,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청희가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일상을 규칙적으로 운영, 관리하다가 어떤 파탄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잘 드러나듯이, 대졸 사무직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문제는 전술한 중산층 가정의 테일러리즘화의 과정과 그것이 초래하는 삶의 균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여성들은 일과 가사 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간 관리 및 일정 관리를 해야 하며, 바깥에서 노동하는 시간만큼 가사 일과 가정 일에 열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압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질적 효율성의 관리 의무까지 떠안는다. 게다가 그들은 끊임없이 가정 안팎의 타자들에 의해 불완전한 의무 수행을 의심받고, 실제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즉시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극히 취약한 위치에 서 있다. 이는 이른바 ‘워킹맘’ 첫 세대의 등장, 그러나 아직 그러한 ‘워킹맘’을 수용할 사회적 논리나 기반이 마련되기 이전의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22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12, 138쪽.

하여 80년대 소설에서 보이는 맞벌이 여성이 속한 중산층 가정의 테일러리즘 양상과 균열, 그 동역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980년작인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경우 박완서의 70년대 작품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전업주부의 인물형들과 8-90년대로 넘어가면서 자주 등장하는 ‘워킹맘’ 사무직 여성 인물형의 전면화의 사이, 그 경계에 놓인 작품으로서 과도기의 변화를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당시 중산층 가정의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테일러리즘의 ‘미덕’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긴장과 역동적 계기를 예비적 작업으로 살피고, 이후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맞벌이 여성 청희와 그녀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규율과 관리의 작동 방식,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2 중산층 가정의 ‘기획/관리’와 ‘비대한’ 여성

80년대 중산층은 새로 등장한 ‘기계’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적응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시 중산층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마이카’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운전 교습을 해야 했으며 컴퓨터가 갖추어진 낯선 운전면허 시험장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계의 등장은 그에 신속히 적응하는 신체를 요구한다. 멋지고 편리해 보이는 ‘마이카’를 과시하기까지 그 이면에는 ‘마이카’에 신체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흠뻑 땀이 젖을 정도로 힘들고 우스꽝스러운 과정이 있었다고 회고하는 장면을 소설 속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²³ 특히 이러한 새로운 기계에 대한 적응과 관리가 요구되었던 곳은 바로 중산

23 “주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김달국 씨가 갑작스레 손수 운전자로 변신하기까지의 내력은 대중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물론 떡 먹듯이 쉽게 중산층의 소망을 이룬 건 아니다. 운동신경이 유난히도 둔한 달국씨로서는 대졸 학력의 중년 신사 체면에 교양머리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조교들로부터 무수히 지청구를 먹어야 하는 운전 교습 과정부터가 참으로 망신스러운 것이었다. 특히나 멀쩡한 사람을 번번이 낙방시켜 바보로 만드는 면허시험장의 컴퓨터는 달국씨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평가하기엔 실수 없이 잘 해낸 것 같은 데도 뭔가 구조적인 결함이 있음에 틀림없는 그 컴퓨터란 괴물이 걸핏하면 심통을 부리는 바람에 달국씨는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소홀찮이 시험장에 갔다 바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중산층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처자식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고 또 어엿한 중

층 가정 ‘안’이었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기계들, 이른바 ‘전기 하인(electric servant)’²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전 제품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컬러 TV, VTR, 에어컨, 전기밥솥, 차고문 등의 자동화에 이어” “전화, 카세트, 오디오, 전자레인지, 유리, 쌀통까지 자동화”되고 있다고 선전하는 80년대 중반의 분위기²⁵는 가사용 전기 제품이 중산층 가정에 일상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냉장고를 소유한 사람이 90.5%, 그밖에 전기 밥솥(80%)뿐만 아니라 전기믹서(61%) 전기프라이팬(60%) 등을 고루 갖고 있어서 식품을 조리하는데 시간이 절약되는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율이 높다”²⁶는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가전 제품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었고 이에 맞춰 일상을 구성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사 노동의 성격도 변화했는데, 상당한 육체적 힘을 동원해야 하는 노동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고, 다양한 기계의 조작과 관리가 이를 대체했다. 전술한 바처럼 기술이 가져온 편의는 반대 급부로서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

즉 가사 일손을 도와주는 가전 제품이 많이 보급되었고 이전 시대와 다른 편리한 주거 환경, 가사 환경이 마련되었으니 여성들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낭비 없이 효율적인 일상/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부는 여러 가전 제품을 동시적으로 활용하여 가사 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게 절약된 시간을 또 다른 의미 있는 기획을 위해 투자해

산층 가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서민층하고 확연히 구분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만한 수고와 수모쯤은 얼마든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 윤홍길, 『말로만 중산층』, 청하, 1989, 304-305쪽.

24 ‘전기 하인’이라는 용어는 김덕호의 논의(김덕호, 앞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덕호는 미국의 중산층 가정의 사례를 들며 제너럴 일렉트릭사 같은 대기업이 전기 가전제품을 생산하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가정주부들을 가사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 홍보, 선전했다고 설명한다. (같은 책, 21쪽) 이는 미국의 상황이지만, 가사 가전 제품의 보급이 “가사 노동의 해방”을 가져와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제공했다고 보는 7-80년대 한국 사회의 여론과 동일한 맥락이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상품집중분석-세탁기」, 『가전시대』 63권, 1998, 41쪽.

25 「안방까지 파고드는 자동화 바람」, 『매일경제』, 1985.9.17.

26 「도시 주부들 대상 조사 음식 조리 맛보다 영양 중시 식단은 남편 자녀 중심으로」, 『매일경제』, 1985.6.24.

야 한다. 정리하면 이는 육체 노동의 양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만큼 일상과 시간 관리를 기획적으로 하라는 요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낱이 발전하는 가전 제품의 기능과 가정 관리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현대식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가꿔낼 수 있다는 주체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자극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주체적 욕망을 압도하고 초과하는 외부의 구조적인 압박과 견제의 견고한 힘이다.

낭비 없는 노력 관리의 지혜,
주부의 집안일 합리화,
온가족 힘모아 가사 노동 단축,
주 한달 계획 짜 보면 큰 보탬,
틈나면 취미 그룹활동에 적극활용 해볼 일

(전략)

학교나 직장에서와는 달리 가정에서는 별다른 시간관념 없이 지내기가 쉽다. 이런 무계획성이 주부들의 생활을 맥빠지게 만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송되기 쉽다. 실제로 주부들은 자신의 하루가 무슨 일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시간에 대한 관념을 새로이 하자고 서병숙 교수는 제의한다. 주부의 한 시간도 직장인의 한시간, 수험생의 한시간과 똑같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갖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을 측정하는 것. (중략) 당신은 하루의 얼마를 노동에 쓰고 얼마만한 여가를 가지는가.²⁷

가사일은 “스위치만 누르면 다 되”²⁸는 것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품 사용법을 철저히 익혀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한 시간 관리의 실

27 「낭비없는 노력 관리의 지혜, 주부의 집안일 합리화」, 『동아일보』, 1984.6.6.

28 이시형, 앞의 책, 68쪽.

패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 부정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가전제품 등 각종 생활 이기의 발달로 자칫 주부들이 가정 살림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기 쉬운 세태”²⁹라는 우려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기획’과 ‘관리’에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당시 대중 매체들의 경고는 심심찮게 확인된다.

산아제한에 따른 육아기간의 단축과 핵가족화, 각종 가전제품의 보급 등으로 가사노동이 줄어들어 따라 주부들의 여가는 크게 늘었으나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길이 없다. 현재의 주부 여가 활동은 대부분 소비지향적이거나 소극적 취미의 수준에 불과, 이를 가정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³⁰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곧 그러한 기획과 관리에 실패한 여성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로 이어지면서 ‘한가롭고 배부른 여성’으로 이미지화된다. 물 잘 나오고 치안이 좋은 맨션이나 연립, 아파트에 살면서 승강기로 이동하고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사치스럽고 한가한 존재로 그려지고, 공장 노동자나 육체 노동자의 반대편 항에 배치된다.

남들 사는거 좀 보란 말야.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야학에서, 카톨릭 농민회에서, 이놈의 이 영터리 사회구조 다 때려부수고 함께 노나 먹는 사회 맹글자고... 그게 무슨 뉴욕이나 함부르크 애긴 줄 알아? 그런데 뭐가 어째? 물 잘 나오고, 문단속 필요 없고, 에레바타 척척 타고 다니면서 편한 생활 해보겠다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³¹

무슨 돼먹잖은 소리를 하는거야? 흑백 텔레비가 뭐가 어때서? 세탁기

29 「바느질 요리도 제대로 배워보자—중년 주부들 살림 재수업 붐」, 『조선일보』, 1985.11.28.

30 「시간 남아도는 어머니들 일거리가 없다」, 『경향신문』, 1985.5.1.

31 박영한, 『우리는 중산층』 2권, 세계사, 1991, 86쪽.

안 쓰면 누가 죽기라도 한 대? 제 폰수대로 사는거지 뭘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다고 으스대는거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날이 머잖았다구? 속지마 제발. 조작이야. 그런 엉터리 자기위안이 어딴어? 몸뚱이만 비대했지 머리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무슨 말라빠진 중산층이고 선진국이야?³²

몸을 사용해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산층 여성의 반대편에 놓음으로써 생성되는 효과는 바로 ‘남아도는 시간’에 체계적인 시간 관리 및 일정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여성들이 ‘비대한 신체’를 가진 것으로 이미지화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미용학원 원장 청희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중산층 여성 손님들의 몸을 보며 그녀들이 제대로 된 가사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남아도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들을 “기름진 배”로 묘사하는 장면은 세심한 독해를 요한다. 청희는 그녀들의 몸을 노동력은 퇴화한 채 관능만 남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몸이라고 혐오한다.

당신 몸을 빨래로 만들지 말고 당신이 빨래를 해요. 땅바닥에 퍼더버리고 앉아 힘껏 빨래를 비비고, 허리 펴고 행구고, 옆드려서 걸레질 하고, 허리 펴고 유리창 닦고, 옆드려서 마당에 잔디 깎고, 허리 펴고 하늘 보고, 매일 그만큼만 일을 해봐요. 맛있는 것은 작작 먹고… 가는 허리 안 되고 배기나.³³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부인이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애완동물처럼 목구멍으로 신음했다.

부인의 손에도 한때의 노동의 흔적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퇴화해 버리고 관능만이 남아 지느러미처럼 흐느끼고 있다.³⁴

32 박영한, 『우리는 중산층』 1권, 세계사, 1991, 230-231쪽.

33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12, 72-73쪽. 이하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안 면수로 표기함.

34 위의 책, 63-64쪽.

그러나 기름진 배가 있었다. 단군 이래 최고를 구가하는 풍요를 몸소 증거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요새 일부 여자들의 배는 건잡을 수 없이 기름지고 비대해져 가고 있었다. 현대의 콩쥐가 거기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생존을 의지하기로서니 그걸 무슨 수로 말린단 말인가.³⁵

그 여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염색한 머리와 위로 당긴 얼굴과, 노동력은 퇴화하고 관능만 남은 손과, 70년대 부를 차곡차곡 쟁인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허리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대해³⁶

청희의 손님들이 경제적 걱정이 없는 여성들임은 분명하고, 동시에 70년대에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부를 독점한 상위 계층에 대한 비판으로서 ‘비대한 신체’를 묘사한 것이라는 함의를 읽어낼 수는 있으나, 청희가 필요 이상으로 그녀들을 경멸하며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청희 역시 큰 미용실과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녀의 남편은 대학교수로서 방송까지 출연하는 유명인사이다. 즉 그녀의 경제적, 사회적 계층은 그녀의 손님들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는 맞벌이 여성인 청희의 일상과 대비되는 ‘비대한 몸’으로서 일군의 여성들을 설정하고, 청희가 그녀들을 계속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쩌면 이는 청희가 자신은 결코 ‘비대한 여성’이 아니라는 강한 자의식, 더 나아가 저러한 ‘비대한 여성’이 절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고 경계하며 단속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혐오라기보다는 일종의 ‘불안’일 것이다. 이때 ‘비대한 여성’에 대한 경멸, 즉 자칫하면 ‘비대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엄청난 양의 바깥 일을 하면서도 시부모도 모시고 가사 일도 살뜰하게 챙기며 자녀 교육까지 게을리하지 않는 철저한 ‘기획’과 같은 삶으로 몰아간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혐오,

35 위의 책, 74쪽.

36 위의 책, 75쪽.

강박, 불안의 감정이 청희라는 여성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개된 감정이라는 점이다. 그 근저에는 가정의 모든 고된 육체 노동을 홀로 감당해온 전통적 여성의 삶을 기준으로 물질적 풍요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여성을 게으르게 하고 가정의 무임승차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회적 편견이 놓여 있다.

3 기획된 일상과 80년대 워킹맘의 경제

8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부양자로서의 남성, 가사 전담자로서의 여성이 주가 된 4인의 중산층 핵가족이 이상적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그것은 ‘이상’인 만큼 실제로는 너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했다. 우선 여전히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부부 중심’의 가족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서울로 상경한 가난한 소녀들이 ‘가내 하인’으로 집안에 기거하거나 주택의 방 하나를 타인에게 월세로 임대하는 관행도 남아 있었으므로 근대 도시 핵가족의 독립적 삶은 아직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급여가 적을 경우엔 여자가 부업이나 다른 경제적 활동을 통해 가정의 경제력을 보완하는 경우 역시 많았다. 따라서 지배 규범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체라기보다 생존 요구와 삶의 전략에 따라 가족이 구성되었다³⁷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유동적인 가족 형태 안에서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전방위적으로 가족의 일상을 관리해야 하는 일을 도맡았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가정 내의 여러 일들에 대해 많은 의무를 지며 가정의 모든 일들을 계획,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기능해야 했다.

이를테면 청희는 한때 남편과 같이 일하던 대학 강사로서 남편보다 더 실력을 인정받고 먼저 전임 교수로 물망에 올랐으나 남편의 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 스스로 공부를 그만둔다. 이후 미용실과 미용학원 원장으로서 성공하여 교수 남편의 적은 급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을 올리며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가장 노릇을 한다. 문제는 청희가 아내,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

37 이효재, 『한국가족론』, 까치, 1990, 29쪽.

느리,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 등 가정 내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종합 가사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미용실 원장으로서 경영자의 역할,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한 미용학원 원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며 일인 다역의 일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의 중산층 가정에 얽힌 온갖 복잡한 일들을 기
획하고 통제하는 것은 오로지 청희의 몫이었다. 이를 위해 청희의 일상은 처음부
터 끝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촘촘한 시간 관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식구들은 모두 돌아와 있었고 저녁 준비도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돌보
기로 돼 있는 것만 남기고 끝나 있었다. 다 된 음식에 간을 맞추고 먹음
직스럽게 접시에 담고 송 부인만을 위한 한두 가지 음식은 처음부터 손
수 조리하는 게 그 여자의 일이었다. 식구들은 누구나 그 여자의 손이 그
만큼은 간 식사를 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소홀히 한 음식을 단박 알아맞
혔다. 식구를 위해 끼니 때마다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건 그 여자의 의무
였고 기쁨이었다.

그러나 명구 방에서 나온 그 여자는 자기를 위해 정확하게 남겨진 그 정
도의 일 앞에서 잠깐 어쩔 줄을 몰랐고 곧 짜증을 느꼈다. 아무 것도 손
에 잡힐 것 같지 않았지만 숙련공이 탄 생각하면서도 대과없이 기계적
인 일을 처리하듯이 그 여자도 건성으로 그러나 아무도 건성인 걸 눈치
챌 수 없도록 저녁 준비를 거들었다. 자기의 이런 주부 노릇의 무의미성
에 간간이 몸서리를 치면서.³⁸

낮 동안에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청희가 저녁에 돌아올 때쯤이면 가내 하인이
식사 준비를 해놓는다. 그러나 모든 식사를 다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청희가 만들
어야만 하는 시어머니의 반찬, 그리고 식탁에 최종적인 저녁식사를 내놓기 전에
해야 하는 마지막 간보기는 빼놓는다.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가내 하인의 손에 완
전히 맡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모든 일들은 순
서대로 정확하게 처리된다. 주어진 시간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가족의 만족 총량

38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12, 100쪽.

을 최대치로 높이는 방식인 것이다.³⁹ 이는 마치 기업의 “종합 품질 관리(Total Quality system)”와 마찬가지로 읽힌다. 이때 가정은 구성원들이 제한된 시간 할당량 안에서 중요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처럼 여겨진다. 혹실드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가정 내의 시간은 모두 정해진 약속된 시간이며, 가정 내에서 “Taylorized feel(테일러화된 느낌)”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⁴⁰ 그 속에서 청희는 자신이 “기계적인 일을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가정의 일상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숙련공”으로서 자신의 삶을 비유한다. 즉 “숙련공”으로서 “기계적인” 일과를 매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한 일상의 무의미함에 “절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커다란 압박은 바로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온다. 바쁜 일상으로 아이들을 전업주부 엄마만큼 옆에서 챙겨줄 수 없는 청희는 자기가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빈 시간에 아들을 과외방에 보낸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자식 관리는 소위 ‘현모양처’라고 불리는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는 비아냥의 대상이 된다. “이래서 직업 가진 엄마 애들 중 문제아가 많다”(70쪽)는 편견과 자신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청희는 전업주부 엄마들 못지않게 아들 교육을 신경 쓰고자 노력하는데, 이때 그녀를 추동하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다. 자신이 다른 전업주부 엄마들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그녀는 아들과 ‘질 높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을 갖는다. 자녀 교육을 위한 ‘시간의 질적 관리’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일류 과외를 알아보고 아들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것도 물론이다. 그것이 청희에게는 맞벌이 엄마로서 최대한의 “엄마 노릇”(113쪽)이기 때문이다.

“고 3 치르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39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운 저녁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모였다. 그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일가 단란의 시간이었다. 삼대가 함께 사는 집안의 원만과 균형의 구심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그 여자는 벌써부터 관록 같은게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지금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었다. 위의 책, 100쪽.

40 Arlie Russell Hochschild, *The Time Bind*, New York: Henry Holt, 2000, p.49.

“참 마담은 이제 만이니까 뭘 모르는구료.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더 뭘 모를 수밖에...”⁴¹

“내가 자상하게 돌보지 못하는 게 가뜩이나 걸리는데 밖에서 좋은 친구
까지 없다면야 어째 심각하지 않니?”

“엄마가 출창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가 아닌 걸로 별안간 신경 쓰실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안 계신 적이란 엄마하고 아
버지하고 가끔 외박하실 때밖에 더 있었어요?”⁴²

“엄마 마음 강하시라고 그런 말 한 건 아닌데... 정말은 그렇게 아이들
한테 미움 받는 엄마들이 결코 다 직업 가진 엄마가 아니라 살림만 하는
소위 현모양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요.”⁴³

가정 내 자신의 물리적인 부재를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 그녀는 아들과 집중적으
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살림만 하는 현모양처 엄마들의 자식들
중에서도 불량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려주어도 청희의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산층 가정의 ‘워킹맘’이 갖는 복합적인 모순을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일반적인 테일러리즘 속의 노동자들이 경영주의 철저한 통제 아래 컨
베이어 벨트 위의 노동 리듬과 속도에 적응하고 이를 효율적 생산성으로 증명해
야 입장이라면, 워킹맘의 경우에는 사정이 보다 복잡하다. 즉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가정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까
지 수행하는 까닭에, 자신이 기획한 가정의 일상과 그 일상의 어셈블리 라인에서
복무하는 노동자의 역할이 맞물려 있다. 즉, 기획자이자 경영주이면서 동시에 노

41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12, 69쪽.

42 위의 책, 83쪽.

43 위의 책, 85쪽.

동자인 모순적인 구조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녀 교육, 살림, 미용학원 운영, 남편 내조, 시부모 모시기 등, 관리적 돌봄 노동과 경제적 부양이라는 가정을 둘러싼 모든 일을 스스로 조직화하고 기획하며 그 기획에 따라 멀티 태스킹하고 있는 청희는 자신의 숙련공 같은 기계적 일상,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며 반복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속으로 “절규”하고 있지만 그 일상에 대해 회의하거나 의심할 여유마저 뺏긴 상태이다. 청희는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불린다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조소를 하는데,⁴⁴ 이처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그 일상의 톱니바퀴에서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이미 그 일상은 그 자체로 거대해져서 오히려 청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상의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 기획자이자 경영주로서 청희 자신도 일정한 책임이 있으나, 이제 그 구조에서 임의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청희가 스스로를 옥죄는 일상의 톱니바퀴를 설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전술했듯이 한편으로는 노동, 즉 ‘일’하지 않으면 한심하고 ‘비대한’ 여성이 될 것이라는 사회의 혐오적인 경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일하는 여성은 자녀 양육을 게을리할 것이며 아이는 엇나갈 것이고 가정에는 소홀할 것이라는 주변의 불안과 폄하가 양쪽에서 옥죄는 ‘이중 구속’의 상황 때문이다. 여기서는 최소한 비난받지 않을 만한 정상적 가정의 정상적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외관을 지켜가는 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로 나타난다. 이 가혹한 이중 구속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워킹맘 여성이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신력과 물리적 노동력을 사용해야 하며, 최대한의 관리와 기획력, 신속함과 민첩함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의 빈틈을 끊임없이 살피고, 죄책감을 동력으로 삼아 빈자리를 촘촘히 메꾸는 것만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일상의 톱니바퀴 속에 닳게 하고 상실해 가는 과정이니, 청희가 ‘행복한 가정’의 외관의 허위를 조소하

44 “그 여자는 자기 집이 행복한 가정으로 소문나 있다는 걸 처음 들었으면서도 그 소문을 배반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소문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행복 속에 타인을 맞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콩쥐가 어디로든 자발적으로 움직일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어떡하든 그 여자가 치위야 할 보통이라는 건 점점 확실해졌다.” 위의 책, 178-179쪽.

고 ‘주부 노릇’의 무의미함에 몸서리를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청희가 자신의 미용학원에서 일하던 콩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녀를 도와 주려 하며, 결국은 그녀를 자신의 집까지 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일상에 새로운 탈출구,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신의 삶을 바꿀 자신이 없던 청희가 택한 것은 불쌍한 소녀 콩쥐를 성심껏 지원함으로써 그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옥희한테 못할 노릇한 건 우리야. 너희 아버지 옥희를 작은 위안으로 삼았고, 그보다 앞서 엄만 옥희를 엄마의 어떤 일의 시작으로 삼으려고 했고 둘 다 개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 엄마가 옥희에게 지어준 별명이 뭐였는지 너 아니?”⁴⁵

청희는 자신이 옥희를 “어떤 일의 시작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고백한다. 정작 청희 자신도 남편 인철, 시어머니, 가정이 요구하는 모든 노동을 불합리하게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콩쥐에게 괴롭히는 오빠들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기를 것을 조언한다. 청희가 콩쥐에게 갖는 감정이 초반까지는 동정심과 시혜의식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청희는 콩쥐를 돕는 것을 자신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변화라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감히 옛날이야기 속에서 콩쥐를 도와준 신비한 자비의 손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176쪽) 느꼈기에 청희는 옥희를 콩쥐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희의 마음의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오빠들로부터 시달리면서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무리한 노동을 하는 콩쥐의 삶과, 가정의 관리와 가사노동과 경제적 부양까지를 모두 도맡고 인철에게는 내조를, 자식들에게는 엄마노릇까지 해내야 하는 자신의 삶 사이에서 일종의 유비관계를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콩쥐에게 독립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설령 청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할지언정, 이후 콩쥐가 청희의 가정으로 들어가 그녀의 남편과 불륜을

45 위의 책, 473쪽.

저지르고 청희 가정의 허위를 목도하게 한 뒤, 청희가 보이는 이상할 정도의 침착함과 콩쥐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다.

4 일상과 신체의 ‘정지’와 그 의미

중산층 가정에 들어온 하녀, 식모가 주인집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모티프는 꽤 많이 사용되어온 대중적인 모티프이다. 콩쥐가 청희의 가정에 들어온 순간, 남편인 인철과 모종의 관계가 성립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쉽다. 여기에서는 콩쥐와 인철의 불륜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청희의 일상과 가정에 어떤 균열을 일으켰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희가 외면해 온 자신의 삶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인철과 콩쥐가 이미 서로를 육체적 상대로 알아보고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부터,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대해 인철이 ‘처가살이’라는 표현으로 모멸감을 주면서부터이다. 두 가지 사건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인철은 자신이 콩쥐와 불륜을 저지른 시점이 바로 ‘처가살이’를 하느라 청희가 가정에 소홀했던 시기였다고 항변하며, 그렇게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청희는 콩쥐와 불륜을 저지른 데다 평생 시어머니를 모신 아내가 친정 어머니를 보살피는 데 대해서는 그토록 강한 경멸을 표시하는 인철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드디어 가장 두려워했던 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목도하는 일을 시작한다. 즉, 청희는 자신이 움직인, 혹은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일상의 연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여자는 아무도 없는 부엌과 거실의 불을 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손수 장만하고 오랜 세월 손때 묻혀가며 길들인 세간과 그릇 나부랭이들과 대면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그것들은 제각기 쓸모로 해서 또는 제각기의 아름다움으로 해서 정이 들대로 든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돌연 그 여자의 정을 저버리고 정 없는 사물이 되어 놓여있었다. 마치 고물상에 들어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낯설고 무의미했다.

그 여자는 남편과의 절연감이 모든 식구들과 사물에까지 확대되어 자기를 따돌리고 밀어내려 하는 것처럼 느꼈다. 남편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한패였고 그 여자만 외톨이었다. 의지할 데라곤 없다는 생각이 다시 그 여자를 견딜 수 없게 했다.

그 여자가 불을 켜고 대면한 건 세간도 그릇도 아니었다. 외톨이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자신에게서 도망치듯 불을 켰다. 거실과 부엌이 연결된 대어섯 평 정도의 어둠이 생전 헤어날 수 없을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⁴⁶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 청희의 가정의 일상을 굴러가게 만든 집안의 기구, 물건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고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녀가 퇴근한 뒤 ‘마지막 간보기’를 기다리고 있던 부엌,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청희가 만들어야 하는 ‘시어머니 저녁 반찬 한 가지’를 위한 세간살이, “숙련공”(100쪽) 청희가 “일가 단란의 시간”(100쪽)을 유지하기 위해 “벌써부터 관록 같은 게 붙어 있었다”(100쪽)고 표현할 만큼 오랜 세월 길들인 물건들이 더 이상 그녀와 일체로 머물지 않는다는 느낌이 바로 그것이다. 집안의 모든 사물들은 그녀의 손을 타고 그녀가 길들인, 혹은 그녀를 길들인 것이지만 그것들과의 일체감은 그녀의 가정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가정의 위기 시에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그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만다.

청희가 그때 받는 느낌은 “절연감”(350쪽)으로 표현된다. 모든 일상의 연쇄로부터 자신이 소외당하는 느낌. 이전까지는 문득문득 자신의 가정이 부조리한 기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하기도 했지만 이미 청희는 그 거대한 일상이 자가 발전하여 굴러가는 시스템 안에 최대한 자신을 적응해 그 시스템을 지지하는 가장 큰 축으로서 성실히 복무하던 차였다. 그러던 중 드디어 남편, 가정, 일... 로 이어지는 일상의 어셈블리 라인에서, 자신만 배제된 것 같은 “절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그 절연의 감각은 사실 애써 의식 아래로 감추려 했던 그녀의 삶의 허위가 공취와 인철로 인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 발생한다.

46 위의 책, 350-351쪽.

학교의 도의 시간도 아니겠다, 잘 길들고 기름 듬뿍 친 기계처럼 매끄럽고 익숙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도상에서 불쑥 혹시 내가 뭘 잘못된 게 없을까 반성을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도 생갑스러운 일이었다. 더욱 부당한 건 그런 강요당한 반성을 통하면 가난한 집 딸들의 건실한 자립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는 가룩한 뜻은 단박 위선인 게 탄로가 나 그 여자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였다.⁴⁷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헤치는 일은 이미 “잘 길들고 기름 듬뿍 친 기계처럼 매끄럽고 익숙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도상”을 깨는 일이다. 쉼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애초에 청희가 그 일상의 기계를 멈추기보다 차라리 가난한 집 딸들을 돕는 것, 콩쥐 같은 아이들을 거둬 돕는 것으로서 자신의 반성을 대신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콩쥐를 집에 들이고, 콩쥐가 인철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청희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는 것, 즉 찾아온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배신감이자 분노’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어쩌면 청희는 콩쥐로 인해, 자신의 기계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 딸인 콩쥐를 도움으로써 봉사나 시혜의 식 따위로 자신의 허위가 가려지기를 바랐고, 콩쥐를 집안에 들이는 결정을 하면서부터는 그 일로 일상의 기계를 정지시킬 어떤 알리바이가 만들어지기를 갈망하는 무의식이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잉 해석은 아닐 것이다.⁴⁸ 이는 콩쥐의 오빠인 재남이가 찾아와 으름장을 놓으면서 인철이 콩쥐와 별인 일에 대해 고발하고 은밀히 그 대가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 여자는 마치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 속 깊이 놀라진 않았다. 가슴이 후들댔지만 놀라움에서가 아니라 수치감에서였다. 뭔지 모르지만 구린 게 있긴 있는데 알은체하거나 노출시키지 않는 게 수일 것

47 위의 책, 395-396쪽.

48 그렇기에 청희가 아들에게 “엄만 옥희를 엄마의 어떤 일의 시작으로 삼으려 했”(473쪽)기에 자신이 오히려 콩쥐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설득력을 갖는다.

같이 싸고 싸놓은 채 조심스럽게 피하던 것과 불의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그 더러운 속사정에 코를 틀어막은 느낌이였다.⁴⁹

청희는 이미 인철과 청희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고 놀라지 않는다. 그녀가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수치심이다. 겨우 싸놓아 은폐한 어떤 것이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수치심. 여기에서 인철이 콩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이 드러나는 서사가 청희가 유지해 온 기계적인 일상이 정지하는 것과 유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의”로 표현된 인철의 불륜, 혹은 그것이 상징하는 그녀의 허위적인 삶은 인철의 불륜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동시에 함께 까발려지는 것이다. 더 이상 인철과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하는 청희는 드디어 기계-일상을 정지시키면서, 자신을 그 일상의 연쇄 속에서 비로소 떼어 놓는다. 인철과 이혼하기 위해 “오늘 산 것처럼 계속해서 내일도 사는 타성만 남겠지. 지금 그 일을 보류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보류하는 게 될지도 몰라”(471쪽)라고 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은 그 타성에서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일상의 정지, 이미 일상과 자신이 한 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 기계를 완전히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데에 이 소설의 핵심이 있다.

그 여자는 인철과 헤어질 준비로 인철의 사계절 옷가지를 모조리 손보고 있었다. 겨울이면 집에서 즐겨 입는 한복을 뜯어 빨아 햇솜을 두어 새로 짓기도 하고, 음력설에 입도록 새겉로 한 벌 장만하기도 했다. 여름이나 춘추 내복 중 낡은 건걸레를 만들고, 터진 건 꿰매고, 몇 벌은 새로 장만하기도 해서 넉넉하게 챙겨놓았다. 또 미장원에서 뜸나는 대로 조금씩 뜨던 인철의 털 스웨터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밤늦도록 뜨개질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 속엔 그 여자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가정적인 행복에의 유혹이 있었다. 그런 유혹은 깜박깜박 오는 졸음처럼 그 여자를 감

49 위의 책, 409쪽.

미롭게 유인하기도 하고, 깊고 깊은 수마처럼 그 여자를 통째로 빨아들여 흐느적흐느적 녹아들게도 했다. 그건 정말 놓치지 아까운 화평이요 행복이었다. 그걸 놓치지 않는 방법은 간단했다. 용서해라 용서해. 이번 한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하면 줄음처럼 감미롭고 몽롱한 행복은 영원히 너의 것이다. 그런 자신의 내부의 속삭임은 친척 여자들의 수다스러운 충고의 몇 배나 되는 설득력을 지닌 것이었다.⁵⁰

인철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청희가 하는 것은 바로 사계절 인철의 옷을 미리 손질해놓는 일이다. 헤어질 남편의 옷을 손질하는 청희의 행동은 정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오래된 일상의 어셈블리 라인 속에서 청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일상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미 그 일상의 작업대는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옷 손질을 하고 있는 그녀의 손길은 무용하게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허공을 가로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독특한 장면에서 그 유명한 모던타임즈의 찰리 채플린, 허공에 볼트를 돌리고 있는 그 무용한 노동의 ‘중산층 가정 버전’을 떠올린다면 과장된 해석일까.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인철의 스웨터를 뜨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과업이었던만큼 그러한 일상은 이미 그녀 자신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이 장면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청희는 자신의 일상, 중산층 가정의 어셈블리 라인에서 충실한 ‘노동자’이자 그것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관리자’로서 살아왔다. 주지하다시피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기계적 일상-삶에 깊은 회의와 환멸을 느꼈고 따라서 자신이 속한 중산층 가정의 어셈블리 라인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진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충실하게 근무하고 잔업까지 자발적으로 도맡아온 가정의 ‘노동자’로서의 청희의 신체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이혼을 결심하고서도 늘 이맘때면 해오던 인철의 사계절 옷을 습관적으로 손보듯이.

이렇듯 청희가 일상을 정지한다는 것은 공장의 노동자가 생산 라인으로부터

50 위의 책, 482쪽.

자신을 분리해내는 ‘파업’을 선언하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그녀는 이 일상의 생산 라인의 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일상을 만들고 설계한 기획자, 경영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해서 단번에 그 일상을 파괴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상 그것은 ‘파업’이라기보다 ‘폐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근거, 기반 자체를 모두 다 완전히 부숴버려야만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청희가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다. 청희가 인철과 정말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이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이혼 절차가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독자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다. 마지막 장면은 상당히 애매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청희와 인철의 결혼생활이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었는지에 대해 어떤 서술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청희는 혼자 여행을 하고 돌아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린 후 다시 인철과의 결혼을 봉합할지도 모른다는 예감마저도 든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청희가 꿈꾸는 이혼이 단번에 성취되는 것으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소설이 리얼리티를 확보한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5 결론

대졸 사무직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문제는 중산층 가정의 테일러리즘화의 과정과 그것이 일으키는 삶의 균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 맞벌이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가사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시간 및 일정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가정과 가사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압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질적 효율성의 관리 의무까지 떠안는다. 뿐만 아니라 점차 발전된 가전 기계, 가사 기계들로 인해 여성들은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야 했으며, 기계로 인해 절약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을 다시 온전히 가정 관리에 투여할 것을 요구받는다. 동시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가정 안팎의 타자들에 의해 불완전한 의무 수행을 의심받고, 실제로 일과 가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히 취약한 위치

에 서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는 상충하는 요구와 감시 속에 묶여 있는 모순적 상황은 현재를 살고있는 2000년대 워킹맘의 경우에도 해당 여성이 속한 사회적 계층을 불문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가능성이 ‘여성은 가정을 위해 무한 헌신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만남으로써 조성된 상황으로서, 이를 이 논문에서는 이중구속의 상황으로 규정하였다. 더 효율적인 삶을 약속하며 가정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테일러리즘의 논리는 이렇게 하여 여성에게 해방보다는 과거보다 더 복잡한 구조의 구속과 딜레마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비롯한 80년대 초반의 소설에서 일련의 고학력 사무직 여성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의미심장하다. 이 소설들은 이른바 ‘워킹맘’ 첫 세대의 등장을 보여주면서 아직 그러한 ‘워킹맘’을 수용할 사회적 논리나 기반이 마련되기 이전의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상태를 묘사한다. 어쩌면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 두 축을 모두 철저히 개발, 관리하고 모두 성공을 거두는 한국 사회의 ‘자기개발’, ‘자기경영’ 담론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장애를 보여주는 문제적 인물이 된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은 맞벌이 여성 청희와 그녀의 가정에서 작동되는 테일러리즘의 ‘미덕’,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규율과 관리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러한 미덕에 철저히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형상화한다. 일상의 생산 라인의 ‘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일상을 만들고 설계한 기획자, ‘경영자’인 워킹맘의 독특한 위치는 이혼이나 퇴직 같은 양자택일 식의 ‘시원한’ 결말이 어려운 복잡한 사정을 보여준다. ‘완전히 가정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던’ 여성 청희의 어정쩡함, 다소 보수적으로 읽힐 수 있는 결말의 애매한 서술은 작품의 결함이라기보다 실제 청희를 비롯한 당대 워킹맘들이 처한 현실과 감각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적 의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박완서, 『도시의 흥년』 1,2,3권, 세계사, 2012
_____,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권, 문학동네, 2011
_____,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12
박영한, 『우리는 중산층』 1,2권, 세계사, 1991
서영은, 『서영은 중단편전집』 4권, 등지, 1997
윤홍길, 『말로만 중산층』, 청하, 1989
『경향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단행본

- 김덕호, 『세탁기의 배신』, 뿌리와 이파리, 2020, 318쪽
이시형, 『자신 있게 사는 여성』, 집현전, 1992, 247쪽.
이효재, 『한국가족론』, 까치, 1990, 29쪽.
조주은, 『기획된 가족』, 서해문집, 2013, 196-197쪽.
기 드보르,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21쪽.
카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I (하)』, 비봉출판사, 2015, 568쪽.
Hochschild, Arlie Russell, *The Time Bind*, New York: Henry Holt, 2000. p.49.

논문

- 심효원, 「근대적 공장으로서의 필름 영화-기술, 제작, 배급에서의 포디즘」. 『현대 영화연구』 제14권 제1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8, 53-81쪽.
이영석, 「전간기 영국의 자동차산업과 포디즘」, 『영국연구』 제24호, 영국사학회, 2010, 211-239쪽.
정진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구조변화와 과제」, 『여성경제연구』 제4권 1호, 한국여성경제학회, 2007, 83-109쪽.

기타 자료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상품집중분석-세탁기」, 『가전시대』 63권, 1998, 41-56쪽.

Abstract

The “Project” of the Middle-Class Family and the Limits of “Working Moms”
—An Analysis of Park Wanseo's Novel *The Beginning of Living Days*

Oh Ja-eun

This article hypothesizes that the idea of scientific management began to affect South Korean family life in the 1980s. Moreover, this article analyzes works of South Korean fiction from this period that deal with working women and family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aylorism. The article primarily focuses on Park Wan-Suh's novel *The Beginning of Living Days*.

Stories of white-collar women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reflect the Taylorization of middle-class family life and its dramatic effects. On the one hand, in the context of new technological comforts, it was imperative that middle-class women restrain from becoming “lazy ladies of leisure,” and they are called on to both work outside the house while also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housework of cleaning, cooking, and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nd parents-in-law. On the other hand, they are often viewed with suspicion because people do not believe that a working woman can be as good a mother and wife as a dedicated housewife. Caught in a precarious situation, Cheong-hee, the heroine of *The Beginning of Living Days*, struggles to deal with her many tasks and obligations by using systematic time-management and Taylorist procedures. She is both the manager of a Taylorist system and a worker who is controlled within that system. However, in the end, it is impossible to make a perfect family in this way. Alienated from her mechanical, self-effacing everyday life, which leads to nothing, Cheong-hee decides to leave her family. However, the ambiguous ending of the novel demonstrates the difficulties and confusion faced by first generation working moms i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Park Wan-suh, *The Beginning of Living Days*, working mom, middle class, Taylorism, body, machine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